

<함께 구상하는 한국여성신학회 - 선후배와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 >

사회자 : 29기 회장 백소영
패널 : 27기 회장 김정숙
28기 회장 이영미
편집위원장 강호숙

들어가는 말

(백소영, 사회자)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야 하는 여성신학의 역사를 위하여 곧 40주년이 될 한국여성신학회의 과거를 정리하고 돌아보며 선배 학자들과 후배 학자들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만들어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신년 모임은 “함께 구상하는 한국여성신학회”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다. 27기, 28기 전(前) 회장 김정숙, 이영미 그리고 총신대학교에서 여성신학을 위하여 힘써왔던 편집위원장 강호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토크쇼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청중의 의견도 들어보려 한다.

과거를 기억함

1) 학회의 출발

(김정숙, 27기 회장) 한국여성신학회는 1985년도 3월 29일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뜻을 모아 창립된다. 본 학회의 취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형식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 그보다 더욱더 가부장적인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고,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와 신학에 있어 겪고 있는 차별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신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등을 통하여 신학과 교회의 현실을 바꾸고자 함에 있다. 1986년, 여성신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타 학문과의 연계, 확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독교공동학회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가입논의를 조건에 맞추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못한 사유로 거부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신학계가 여성을, 그리고 여성신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여성 교수와 학자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었다.

2) 선배에서 후배로, 열정의 부활을 기대하며

(이영미, 28기 회장) 여성신학회가 설립될 당시에는 앞서 언급된 학회 회원 조건 미충족으로 한국여성신학회의 회원이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연관된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었기에 오며 가며 한국여성신학회 초기 학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았다. 오늘 이 시간이 ‘선배와 후배의 만남의 장(場)’인데, 그분들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 결국 학회의 과거를 간접적인 방법만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온 것이 보인다. 이전부터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선배 여성신학자들의 활동과 주장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다. 학위 취득 후 학회에 가입한 것은 비교적 늦은 2002년이었는데, 솔직히 당시에는 학회가 이름조차 생기기 이전부터 노력했던 수많은 선배 학자들이 보여준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없었다. 한국여성신학회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왔는가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다시금 처음의 열정을 부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3) 현장과 이론의 균형, 여성신학회의 딜레마와 과제

(백소영) 1980년 현장성을 담고 있는 여신학자협의회(이하 여신협)가 먼저 창립되었다. 여신협은 박순경 초대 회장이 정의한 ‘신학자’의 기준에 따라 학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신학을 전공하였고 신학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여성신학의 학술적 활동과 지위 확보를 위하여 학문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조직이 필요하겠다는 협의 속에서 5년 후 한국여성신학회를 설립하였다. 때문에, 초창기에는 두 조직의 주된 활동 구성원들이 겹쳐 있었다. 그래서 조직 체계로는 구별이 되어 있어도 현장과 이론을 이원화하지 않았다. 당연히 현장에서 받은 에너지가 고스란히 학회로 이어졌다. 앞서 이영미 전 회장님께서 2000년대 초반의 학회에서는 열정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변화된 분위기를 전하신 것에 공감하는 바이다. 여신협은 지금도 현장성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으나 학회는 개인 연구자의 실적 평가 등 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학회원들 간의 유대와 결속도 줄어들었고 현장에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아무래도 학회에 속한 이들이 연구에 치중하면서 동시에 현장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러나 현장이 없는 여성신학은 동력을 잃는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가 현재 겪는 하나의 딜레마이다.

4) 과거를 지키기 위한 지난 노력 ‘사상집’

(백소영) 우리 사상을 정리하기 위해 앞선 큰 노력이 여럿 있었다. 그중 한 가지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신학사상』을 지속하여 편찬한 것이다. 『여성신학사상』은 사상집으로서 학회 초기부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많은 학자가 애써가며 방법론, 내용 등을 채워 나갔다. 198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매달 한 번씩 모여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동력을 오늘날 온전히 이어가지 못한 점을 반성하게 된다.

현재의 과제

1) 역사를 계승할 과제

(이영미) 학계에서 널리 이름이 알려진 남자 신학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박순경 초대 회장 등 교회에 공헌한 여성신학자들에 대해 여성신학계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과거의 선배 신학자들의 업적을 지속하여 소환하며 신학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

(백소영) 이에 공감한다. 결국 과거 선배 신학자들의 콘텐츠 등을 다시 귀속하여 소환하고 우리의 전통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가독성과 현장성의 확보

(강호숙, 29기 편집위원장) 이번 회기에 출판 예정인 한국여성신학회 사상집은 보수 교단에서 오래 있었던 본인이 편집위원장으로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콘텐츠로 기획하고 있다. 지난 시간 우리 한국여성신학회는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어 왔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좋은 주제와 이야기를 담고 있으나 많이 읽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사상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독성 증진 등의 문서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학문적으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여성신학, 페미니즘, 사회 문제 해결의 실행을 목표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소영)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학회가 겪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이다. 학문적 부분에 집중하기 위하여 시작된 이 조직이 외부의 시선으로는 현장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공동체의 염원을 파악하고 이후 위원회를 통하여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나가고자 한다.

(정미현, 조직신학 박사) 많은 부분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다 보니, 한국여성신학회(이론)과 여신협(현장성)이 함께 모여 시너지를 내거나 여성신학계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나아갈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우리 안에서 힘겨루기, 배타적 영역 싸움은 무의미한 것이다.

3) 자매애의 회복이 필요하다

(김정숙) 학회 초기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모일 수 있는 열정, 동력, 그를 후원하는 자금과 시대를 앞서가는 남성 신학자들의 동조 등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추동력을 갖출 수 있었다. 사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일궈내 온 것들에 대해 감탄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시간은 흘러 시대는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여성신학을 하는 것에 있어 좋은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에 비하여 여성과 여성신학에 대한 인식이 퇴화하고 열정과 패기가 축소되어 가는 가운데 지금처럼 여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성신학회로 모인 것 자체가 매우 큰일이라 생각하며, 서로 조금 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과거 선배 학자들을 따라 여성이란 무엇인가, 내가 여성으로서 살아갈 삶은 어떤 것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과 자각, 더 앞서 이들을 사랑한 예수란 누구인가에 대해 새롭게 정립하고 예수로부터 멀어진 교회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그 수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생존하기 힘든 여성들은 저마다 생존을 위해 여성신학의 기초적 개념인 ‘연대’조차 할 여유 없이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서로를 짓밟고 있다. 우리는 ‘자매애’를 기억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백소영)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었다. ‘자매애’는 오늘날과 같은 신자유주의 개별 경쟁 사회 시스템 속에서 유지되기 쉽지 않다. 한국여성신학회가 이러한 자매애를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권진숙, 목회상담학 박사) 선배 학자들의 노력으로 지금 한국여성신학회 후배들의 발전이 있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앞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개인의 생존에 집중하여 대의를 잃어가는 사회’라는 현상 인식에 깊이 공감한다. 과거 크게 지쳤을 때 학교의 지원으로 가게 된 아시아 여성신학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된 적 있다. 그때의 모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자체로 큰 회복이 되었다. 선배 여성신학자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따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학문적으로는 날카로우면서도 공감하고 경청하고 배려해주는 그 분위기를 기억하면 지금의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그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모임처럼 여성신학의 따스한 스펙트럼이 다시금 이루어지길 바란다.

4) 지지와 연대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영미) 한국여성신학회의 초기 사상집은 여성신학의 이론적 개념을 위주로 다루었으나 이후 사상집은 미디어, 혐오, 자본주의 등 당대 한국의 사회적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여성신학을 풀어내느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여성신학회가 방향성을 잡고 학술 단체로의 역할을 잘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 사상집에 원고를 내는 것보다 다른 학회 등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이익, 즉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욱 크므로 학회 차원에서는 방향을 잘 잡아가나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 제도권으로 들어가면서 소수자, 약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뒷전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모이고 대의를 만들어 나가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흩어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이자 하나의 다양성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여성신학회 또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대의를 모았던 과거를 넘어 이제는 각 개인이 각자의 삶에서 여성신학이 지향하는 것들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신생 여성신학 단체들에 이론적, 학술적 기초 또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우리의 잠재 회원인 신학 대학원의 여성들이 여성신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한국여성신학회는 ‘중심’이 아닌 ‘플랫폼’의 역할로 바꿔어야 한다.

미래에의 기대

(박유미, 구약학 박사) 지금 한국여성신학회는 오랜 시간에 거쳐 지금의 사회 이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보수계에서는 여전히 페미니즘의 정의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환경에 있던 이들에게 한국여성신학회, 더 크게 보았을 때 여성신학은 상당히 급진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이 여성신학이 교회에 널리 퍼지지 못하는 이유이자 본인이 느꼈던 진입장벽이었다. 그러한 이들의 속도에 맞추어 그들에게 더욱 친숙한 언어로, 더욱 접근성 좋게 만들어 전해주는 작업이 필요로 할 것 같다.

(백소영) 박유미 박사님께서 편집위원회로 있으시면서 이번 사상집에 이러한 경험이 반영되었다. 사상집의 가제(假題)가 ‘페미니즘의 스펙트럼’인 만큼 가벼운 부분에서부터 깊은 부분까지 있으므로 더욱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한경미, 기독교교육 박사) 본인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른 전공학회들과는 달리 여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학회원들과 함께할 때 편안함을 느꼈다. 다만, 교회 사역 현장에 나오게 되면서 학부에서 보았던 여성 학우들을 목회 현장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아직까지도 더 많은 기독교 학계 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뜻이 크다고 생각하므로 한국여성신학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교육과 교회 현장을 접목하여 여성신학적 인식을 더 널리 알리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김성희, 신약학 박사) 여성신학계는 해외의 페미니즘을 번역하고 해석하거나 이대 중심적이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분야, 자체적인 콘텐츠로 상당히 포괄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낀다. 여성신학이 더 발전하고 실천적 측면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앞서 이야기되었던 바와 같이 학자만이 아니라 교회 안 여성 신도 등 독자층을 더욱 다양하게 하여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김순영, 구약학 박사) 학회 현장에 흡수되기 어려웠던 사람으로서 확장성이 부족했던 이유가 높은 진입장벽이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 또한 학회의 진입장벽이 이미 많이 낮아진 것이라 느낀다.

(강희수, 29기 부회장)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국여성신학회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찾는 신앙은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연구하는 학문인 신학은 진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본보기가 되어준 선배 여성신학자들께서 석사였던 자신을 박사인 당신들과 똑같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만큼 이전부터 한국여성신학회는 상당히 열려있는 곳이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후배들을 수용하고 길러내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하여 있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진미리, 29기 총무) 여성신학이 우리나라와 미래 세계를 선도하는 중심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반드시 믿는다. 진입장벽에 있어서는 사람 개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며 칭찬, 격려, 긍정, 협력을 이루어간다면 진입장벽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학회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이영미) 우리는 선배들의 등을 보고 간다. 신학 공부를 하며 가장 아쉬웠던 점이 여성 학자들에 있어 본보기가 없었다는 점이다. 본인이 재학하던 학교에는 여성신학 교수가 없었으나 그런 본인에게 한국여성신학회가 간접적으로 힘이 되고,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한 역할을 이제는 우리와 이에 대한 비전이 있는 29기 임원회와 함께 미래의 신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정숙) 힘든 박사과정을 거친 이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여성 학자들에게 언제라도 오고 싶은 곳, 오면 좋은 곳, 선배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후배들이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언제라도 환대하고 힘을 얻어 가는 한국여성신학회가 되면 좋겠다.

(강호숙) 한국여성신학회에는 3가지 요소 : 조직력과 재정, 그리고 콘텐츠가 필요하다. 기득권층으로부터 받는 차별을 반대하고자 모였으나 여성들 사이에서도 진보, 보수 등 다양한 차별의 문제가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하여 조직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후원 제도를 통하여 재정을 충당함과 동시에 ‘생태’, ‘젠더’, ‘여성주의 성경 해석’에 대한 분과 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회 문제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슈링(Issue-ing)을 하여 학회가 하는 일을 널리 알릴 기회가 필요하다.